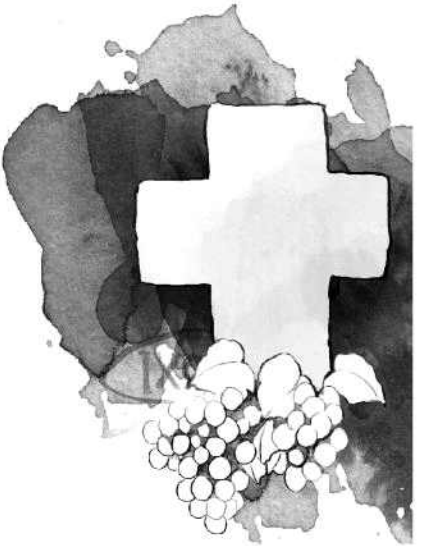
109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청년주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 10. 전능왕 오셔서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지도자들이 모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회의를 했지만, 그 자리는 더 큰 도발과 긴장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참된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친히 평화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높고 굳건한 장벽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대화와 화합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청년주일을 맞아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전보다 경제적으로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지만 청년들에게 세상은 온통 좁은 문 세상입니다. 주님, 어두워진 청년들의 마음속에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참된 생명과 행복에 이르는 길을 일러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계21:3b,4 …… 인도자

▲ 교 독 문 …… 97. 청년주일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김지유 청년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574. 가슴마다 파도친다 …… 다 함께

▲ 성경봉독 …… 마 5:13-16 …… I. 인도자 II. 최하나 청년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I. 사랑의 주 예수 II. 놀라운 주님의 사랑 …… 여성중창단 참빛 찬양대

주님의 크신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고
주님의 크신 은혜 그 어찌 다 쓸까

주님의 크신 사랑 우리의 구원되고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히 변치 않네
주님의 사랑 놀라와 그 크신 주님의 은혜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찬송하세
주님의 크신 사랑 말로다 할 수 없고 주님의 크신 은혜 그 어찌 다 쓸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 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주님의 크신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고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히 찬양하네
영원히 찬양하네 아멘 아멘

말 씀 ····· **인간의 등불**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2부찬 양 ····· 오늘의 기도 ····· 청년부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보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맛을 내고 빛을 비추며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주님,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맛과 빛을 우리도 세상에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힘써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등불이 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담임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울타리 너머의 행복

행복은 행복의 부재(不在)를 통해서만 존재하기 시작한다. 행복은 불행이 낳은 천사이며 이미지이다.

- 정현종, 「절망할 수 없는 것조차 절망하지 말고…」에서

시인 정현종의 행복에 대한 정의는 불행한 현실 속에서 인간이 간절하게 꿈꾸고 있는, 또는 불행한 현실 속에서만 가능한 행복 추구의 막막함에 대해 적절한 암시를 던진다. 우리는 불행을 느낄 때만 참다운 의미에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행복을 유난히 자주 입에 올리고, 행복에 대해 지나치게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고향을 떠나 이방인이 되어서야 고향을 이야기할 수 있다. 고향을 떠나온 자만이 참으로 고향의 존재를 느끼기 때문이다. 고향에서 먹고 자고 씨 뿌리고 거두는 자는, 고향의 존재를 거의 부재에 가깝게 느낄 수밖에 없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행복의 한복판에서 행복하게 먹고, 행복하게 자고, 행복과 더불어 생활하는 사람은 행복의 존재를 느끼기 어렵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복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즉 행복이라는 이미지는 '우리' 속에서 탄생한다.

사람의 행복은, 시인에 의하면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행복 추구가 반사회적이고 비인간적인 파렴치 범행으로 유도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 예외가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행복에 대해 언급할 때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사모스 섬의 군주였던 폴리크라테스는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부와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그에 맞먹는 공포에 사로잡히

고 만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행복한 사람은 신들이 질투를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사소한 불행을 초래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반지를 바다에 던진다. 자신의 엄청난 행운을 유지시키고, 신들의 질투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한 어부가 유난히 크고 신기한 고기를 낚아 군주에게 선물로 바친다. 폴리크라테스는 그 고기의 배 속에서 자신이 바다에 던졌던 반지를 되찾는다. 신들의 질투는, 폴리크라테스의 간교한 수작을 비웃으며 그의 패망을 요구한다.

한 신학자는 이 설화를 '행복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읽는다. 이야기 속 신들의 질투는 "행복한 권력자의 행운을 위해 착취당하거나 부당하게 억압받은 수많은 약자들, 소위 '민중'들의 원한과 분노"라고 도로테 죌레는 해석한다.

많은 사람의 불행 위에 세워진 개인의 행복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행복론은 윤리학이어야 한다. 영국 속담에 '훌륭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말이 있다. 훌륭한 사람이 선한 사람은 아니라는 뜻일 것이다. 훌륭하기가 쉽지 않지만 선하기는 더 어렵다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도 같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를 향한 예수의 행복 선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예수의 행복 역시 개인의 협소한 울타리를 벗어나 있다는 것을.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이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과 대결하게 두어서는 안된다. '나'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차라리 더불어 불행한 '우리'를 택하는 용기를 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행복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즉 행복이라는 이미지는 '우리'속에서 탄생한다."

- 이승우,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복있는사람) 중에서

▪ 마음으로 읽는 글 ▪

반지하 앨리스

- 신현림

토끼 굴에 빠져든 백 년 전의 앨리스와

돈에 쫓겨 반지하로 꺼져 든 앨리스들과 만났다

생의 반이 다 묻힌 반지하 인생의 나는

생의 반을 꽃피우는 이들을 만나 목련차를 마셨다

서로 마음에 등불을 켜 갔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전 도 사 : 장영숙 **소 속 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한완식
장 로 :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곽권희 장원호
지 휘 : 강석남 안홍숙 한선희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김진선 김 린 이상미 김가현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요한 원은이 구재원 김남종 오복순 김성우 박유경 김수진 김용진 박효선 김정근 김종락 박영신 김훈동 유경순 박시내 박영희 박해숙 송형운 하미림 신현일 심상숙 안현숙 오자영 우순덕 윤미경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이광섭 김수연 이미휘 이부곤 이서현 이수자 이용석 이우엘 이유진 이주경 안상숙 이준림 이지하 이치림 강상연 장원호 박성희 전영린 김행자 전은택 정연경 정원석 김현영 정재기 정현선 유병선 최미자 최 숙 한상익 정영선 허호범 박성실

감사헌금
권민철 이상미 김상범 오미숙 김영호 김태정 김형동 유만희 문병욱 민지회 박진주 유수진 이민음 이시은 이상준 이현주 임종수 정학성 김현숙 조문규 진정숙 최승주 최영민 최형서 최혜정 하현일 김광우 한상수 남해린 한성건 정지혜 한성란 무명9

생일감사헌금
권혁순 박혜경 이왕준 임당재 한준혜

녹색꿈헌금
오현우 우순덕 이현민 장현희 무명1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공부 / 강의 : 김재흥 목사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교회소식 ▪

1. **청년주일** :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청년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2. **성경공부** : 오늘 오후 집회는 청파성서학당입니다.
3. **초록가게 미니바자회** : 어린엄마(미혼모)와 아기를 돕기 위한 미니 바자가 오늘 교회 앞마당에서 엽니다.
4. **원로나들이** : 아름다운 원로나들이가 28일(목) 있습니다. 아침 9시 30분에 출발해서 오후 5시 30분쯤 돌아올 예정입니다. 장소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입니다. 중간에 인천국제공항 CGV에서 영화(아이캔스피크) 관람도 합니다.
5. **전교인 나들이** : 오늘부터 전교인 나들이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식사 인원 파악 및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 마당에서 신청 받습니다.
6. **신앙실천** : 맛난 과일이 많이 나오는 철입니다. 아주 천천히 드시면서 그 맛을 깊이 음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파 전교인 나들이 프로그램

숲속에서 영화보기
노래로 다 함께 버스킹
숲 해설 -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설렁설렁 둘레길 산책
등산 - 닥치고 정상까지 등

다음 주 설교 본문	사 19:23-25

		설교	기도	성경봉독
다음 주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예배위원	**2부**	김기석	김기석	박구병

	1부 영접위원	박미연	**헌금위원**	김민화
10월	**2부 영접위원**	김정민 허호범 황현성 박성실 정현숙 박미연		
	2부 헌금위원	하현철 최현옥		

오늘 식당 봉사	2부 찬양대		
다음주식당봉사	곽권희 김진선 권현숙 서미경 유중희 김명희 박명제 김재환		
오늘설거지봉사	아동부 유치부 교사	**다음주설거지봉사**	청파7속
커피 판매 봉사	3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조성일